

池莉 소설의 제재로 나타난 역사적 실재의 의미

- 『你是一條河』와 『預謀殺人』을 중심으로

박정태*

목 차

1. 들어가며
2. 역사적 실재에 기반한 구성과 전개
 - 1) 『你是一條河』: 문화대혁명 시기의 굴곡과 변곡점
 - 2) 『預謀殺人』: 황전 및 내전 시기의 대립과 혼란상
3. 격변기 보통사람들의 생존 서사
 - 1) 정치적 배제에서 시대의 표상으로
 - 2) 혁명과 전란이 남긴 상흔
4. 과거사의 끝자락을 이어받은 현재
5. 나오며

국문초록

중국 당대 작가 츠리(池莉)는 1990년대 초 그의 작품 이력으로는 특이하게 『你是一條河』와 『預謀殺人』이라는 과거의 역사적 실재에 기반한 소설을 발표한 바 있다. 두 작품은 각각 굴곡진 중국 현대사를 드러내는 문화대혁명과 제2차 국공합작 및 국공내전 시기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가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조명을 받을 수 없는 보통사람들을 형상화해 이들에게 시대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이 시기 이들의 삶의 변화, 갈등과 분란, 변신과 부침, 절규와 회한, 미래에의 예견 등을 그리고 있다. 이들 시기는 아직도 현대 중국의 정치와 사회를 규제하는 역사적 실재로 존재하고

* 영남대학교 인문교육학술원 연구원

있다. 따라서 작가는 역사적 실재의 구체적 사안들은 일절 변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혁명과 전란 시기 고단한 삶을 이어갔던 이들을 통해 이 시기의 아픔을 재현하는 한편 이 시기가 현재에 이르도록 남긴 아픈 상흔들을 나타내고자 했다.

키워드: 문화대혁명, 제2차 국공합작 및 국공내전, 보통사람들, 시대적 표상, 생존 서사, 혁명과 전란의 상흔

1. 들어가며

중국 작가 츠리(池莉)의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你是一條河)』(1990)와 『살인의 꿈(預謀殺人)』(1992)은 그의 작품 이력으로는 특이하게 과거의 역사적 실재를 소환해 서사를 구성한 작품들이다. 1980년대 후반 소시민을 내세운 『번뇌인생(煩惱人生)』을 발표하며 이전 시기 문학의 틀을 벗어나 신사실주의 사조의 기치를 들었던 츠리가 이후 곧장 연이어 발표한 중편들이다.

이 작품들은 각각 중국 현대사의 역사적 실재인 1960~70년대의 문화대혁명과 1930~40년대의 제2차 국공합작 및 국공내전 시기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 현대사에 나타나는 역사적 실재에 입각한 구성이어서 작품에 나타나는 사건과 배경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이 역사적 실재들이 서사의 전개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¹⁾

작가의 작품 활동 초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 초에 작가가 특별히 과거와 현재를 내왕한 연유는 명확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주관적인 평론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주제의 설정에서 오는 제약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들 작품의 작품집 서문에서도

1) 1990년대에 과거를 소환해 창작한 츠리의 또다른 작품으로 단편 『응시(凝眸)』(1992)가 있다. 신문화운동으로 각성한 지식인 여성 류진칭(柳真淸)과 그가 연민의 대상으로 삼는 옌장푸(嚴壯父)의 혁명을 사이에 둔 사랑 이야기이다. 1910~20년대 중국 사회 풍조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 작품에서는 본고에서 다룬 두 작품에서와는 달리 역사적 실재는 서사의 구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창작 목적이 청사에 길이 빛날 작품을 남기는 것도, 누군가를 일깨워 주려는 것도, 더구나 문학상을 받고자 함도 아니며, 오로지 독자에게 읽히는 작품을 쓰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²⁾

그런 만큼 그의 작품 텍스트에는 해석 공간이 많아 작품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사색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직관적인 깨달음과 감정체험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높은 가독성을 얻고 있는 것은 작품들이 철학·윤리·미학 등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 생활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여성·인생과 같은 문제에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여타 작품들과는 달리 과거의 역사적 실재를 소환해 시대 배경과 서사 전개에 도구로 삼고 있는 이들 작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는 문화대혁명 시기를 중심으로 한 1960~80년대의 가족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라라(辣辣)라는 한 여인의 모성을 유장하게 흐르는 한 줄기 강에 비유하며 서사가 전개된다. 문화대혁명의 도입부로 작용하는 사청(四清)운동³⁾ 무렵 뜻밖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격변기의 세대에 몸을 실은 채 남겨진 아이 여덟 명을 간난신고를 겪으며 키워내는 그의 일대기 형식이다. 홍위병(紅衛兵)과 조반파(造反派), 상산하향(上山下鄉)운동⁴⁾ 등이 서사의 전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살인의 꿈』은 항전·내전의 전란 시기를 관통하며 복수극 형태로 서사가 전개된다. 선조의 영광을 뒤로 하고 몰락한 소작농 집안의 왕라거우(王臘狗)가 그의 집안에서 원수로 치부하는 봉건 지주 덩종왕(丁宗望)을 살해하고자 일생을 내던지며 집요하게 시도하지만 매번 운이 따르지 않아 실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제2차 국공합작 및 국공내전 시기인 1938년 후베이(湖北)지역에서 벌어진 일본군과의 뎬양(沔陽)전투⁵⁾를 비롯 국민당군과 공산당 신사군

2) 池莉, 『池莉小說精選』, 長江文藝出版社, 2003, 6. 1쪽.

3) 당 중앙에서 장부·창고·자재·노동점수의 4개 부문에서 간부의 부정 유무를 심사한 운동.

4) 문화대혁명 시기 간부나 지식인, 학생들이 사상 단련을 위해 공장·농촌·광산 등의 노동 현장으로 갔던 일련의 움직임으로, 세간에서는 통상 '하방(下放)'이라 불렀다.

5) 국민당군 소속이었으나 단독 행보를 보였던 왕진짜이(王勁哉)의 제128사단과 난징을

(新四軍)⁶⁾의 격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직후의 토지개혁운동 등이 그때마다 왕라거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문화대혁명과 국공합작·국공내전이 중국 사회 당대에 남긴 상흔은 무척이나 크고 깊다. 따라서 이것들이 소설의 제재로 채택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한편 작품 발표 시기와 작가의 연배를 기준으로 어렵다면 대체로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는 한 세대 이전, 『살인의 꿈』은 두 세대 이전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또는 조손 사이를 오가며 전해질 수 있는 구전 제재들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1990년대 초 발표된 이 두 작품을 통해 작가가 이들 작품에서 소환한 역사적 실재들과 서사 사이의 관계, 이러한 역사적 실재들이 작품에 나타나는 주요 인물들의 부침과 변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역사적 실재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삶의 결과물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등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가 굳이 이러한 역사적 실재들을 소환하며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들의 실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주요 인물들의 치열한 삶은 각각의 해당 시기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작가의 손길로 빚어져 형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마치 일종의 증언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 작품은 격변기 한 시기의 어느 실제 인물에 다가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기의 사회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요긴한 도구로도 작용할 것이다.

거쳐 내륙으로 향하던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 '멘양항전'이라고도 한다. 왕진짜이는 일찍이 장제스의 지시에 불복하고 멘양으로 무단 이동했으며, 전투 당시 그의 부대의 무장은 보잘 것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의 부대는 기적같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고, 그의 부대의 전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세력들 사이에서 왕진짜이는 일정한 지분을 가지며 자신만의 항전을 계속해 나간다. 吳勝蘭·羅成, 「王勁哉的沔陽抗戰」, 『當案記憶』 2019年 第4期, 40쪽.

6) 1938년 1월 대장정 이후 화중(華中)과 화남(華南)지역에 머물며 유격전을 벌이고 있던 홍군 1만여 명이 집결해 재편된 신편 제4군. 통상 '신사군'으로 불린다.

2. 역사적 실재에 기반한 구성과 전개

1) 『你是一條河』: 문화대혁명 시기의 굴곡과 변곡점

1990년 12월 발표된 이 작품의 지리적 배경은 지금은 셴타오(仙桃)로 지명이 바뀐 후베이지역 뎬수이진(沔水鎮)⁷⁾이다. 작품에서는 뎬수이진을 끼고 흐르는 상허(襄河)강이 라라의 모성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 전편을 통틀어 서사의 도입부, 전개와 반전, 종결이 이루어지는 대목에서 문화대혁명 시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점이 명확하게 적시된다. ‘1964년 11월 10일 라라가 폐허가 된 하오이(好義) 찻집에서’, ‘라라가 영원히 잊지 못할 1966년 6월의 그날, 음력 초닷새 단오절’, ‘라라가 죽은 1989년 여름’ 등이 그러하다.

이 중 1966년 6월은 문화대혁명의 공식적인 서막이 오른 시점으로⁸⁾, 라라의 인생살이 굴곡과 라라네 가족사의 주요 전개 및 반전은 문화대혁명의 그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64년의 사청운동 발발, 그리고 이어진 홍위병과 조반파의 등장, 1971년의 린바오(林彪) 사망, 장테성(張鐵生)의 백지(白卷) 제출 사건⁹⁾, 상산하향(上山下鄉)운동 등이 그러하다. 작품 서두에 뎬수이진의

7) 작가 쓰리의 고향이자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와 『살인의 꿈』의 무대가 되고 있는 뎬수이진은 창장(長江)강과 한장(漢江)강이 만나는 장한(江漢)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때 이 지역의 상업 중심지였던 곳이다. 진(鎭)은 중국의 행정 단위로, 한국의 읍(邑) 정도에 해당한다. 작가는 이 뎬수이진이 자신에게 있어 마치 물건을 담아 옮기는 하나의 캐리어(载体)와도 같다고 한 적이 있다. 孫雯, 『池莉構造的沔水鎮』, 『文學界(理論版)』, 2012. 5. 25. 183쪽.

8) 문화대혁명은 1965년 11월, 나중에 ‘4인방’에 속하게 된 야오원위안(姚文元)이 베이징 시 부시장이던 우한(吳晗)의 역사극 「하이웨이파관(海瑞罷官)」을 비평하는 「신편 역사극 ‘하이웨이파관’을 평한다」를 상하이 원회이바오(文匯報)에 게재하며 시작되었지만, 문예 비판의 형태를 띤 정치적 대립이 첨예해지던 중 1966년 5월 16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5·16통지」로 알려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지」를 통과시킴으로써 본격화된다. 백승욱, 『문화대혁명-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살림출판사, 2007. 7. 5. 29~31쪽.

상업도시로서의 연원을 밝히고자 향전시기가 잠시 등장하고, 또 대단원에 이르러 1980년대도 잠시 모습을 드러내지만, 주요 서사는 모두 문화대혁명 시기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대혁명은 지금도 중국 사회를 감싸고 돌며 사회 구석구석을 규제하고 있는 현대사의 비극이다. 대약진운동(1958~1959)의 실패와 뒤이어 중국 전역을 덮친 대기근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마오쩌둥(毛澤東)이 자본주의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인 이른바 ‘계속혁명론’¹⁰⁾을 내세우며 민중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한 역사적 실재이다. 그가 동원한 것은 홍위병과 조반파였지만 혁명이 진행되는 도중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해 훗날 ‘10년 호겁(浩劫)’이라 불리는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된다.

서사는 문화대혁명의 도입부인 사정운동 시기 무렵부터 시작되어 1989년 발발한 톈안먼(天安門)사태에 관한 암시에 이르러 종료된다. 사구(四舊) 타파¹¹⁾를 외치는 홍위병의 등장과 마오쩌둥의 친견, 그리고 이어지는 대교류(大串聯)¹²⁾, 그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혼란, 혁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각종 조직의 엇갈린 행태와 세력 다툼, 한 차례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린바오사건과 장테성의 백지 제출 사건으로 표출되는 권력 투쟁,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은 상산하향운동을 거쳐 혁명이 종료된 후 개혁·개방 시기의 도래

9) 1973년 4인방이 고등학생 모집시험을 통해 저우언라이(周恩來)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삼으려 했으나, 랴오닝성(遼寧省)의 장테성 학생이 이에 대한 항의로 백지를 제출함으로써 야기된 일련의 정치적 파란.

10) 현대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는 우선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정치혁명, 그 다음에 토지혁명과 소유제 혁명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왔던 바 이를 ‘부단(不斷)혁명론’이라 했으나,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르러 마오쩌둥은 자본주의로의 복귀 위협을 강조하며 ‘계속(繼續)혁명론’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11) 문화대혁명 초기 홍위병들이 내세웠던 구사상·구문화·구풍속·구습관의 4대 타파.

12) 1966년 8월 마오쩌둥의 홍위병 접견을 계기로 베이징의 학생들이 전국으로 혁명의 불씨를 전파하는 한편 지방의 홍위병들은 베이징으로 몰려들며 당과 정부기관을 공격하고 당정책입자를 비판했던 움직임. 이들의 파괴와 패륜행위로 중국 전역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된다.

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전개된 10여 년의 나날들이다.

라라네 아이들 이름은 그 자체로 이 시기의 역사적 실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아이들 여덟 명 중 ‘서위안(社員)’, ‘야오진(咬金)’, ‘스칭(四淸)’, 이 셋은 차례로 문화대혁명 발발의 정치적·사회적 기저가 되는 대약진운동(1958~1959) 시기의 인민공사, 대기근(1959~1961) 시기의 굶주림, 사청운동(1963~1965)을 액면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마오쩌둥, 린바오, 장테성 등 해당 시기의 실존 인물들은 서사에 사실성과 현장성을 더해줌과 나타난다. 라라네의 장남으로 소년 홍위병이 되었다가 정신질환자가 되는 더우(得屋), 조반과가 득세하던 시기에 조반 사령이 되었다가 정치적 타격을 입어 종내 죽음을 맞이하는 라라네의 삼촌이자 교사 출신 지식인인 왕셴량(王賢良), 이들의 극적인 인생 유전에는 모두 문화대혁명의 흐름 속 이들 실존 인물들의 정치적 입지가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역사적 실재는 다소 모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1966년 9월부터 시작된 대교류는 1967년 1월 군(軍)의 개입과 함께 중공 중앙이 그해 상반기에 이미 중단시킨 바 있었으며, 방문 지역 역시 초기에는 혁명 유적지와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대교류에 참가한 더우의 대사에서는 이러한 시점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왕셴량이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은 사건은 1968년 후베이성 멤수이진에서 당권파(黨權派)와 조반과가 충돌했던 ‘3·13 사건’으로 추정되나, 작품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2) 『預謀殺人』: 항전 및 내전 시기의 대립과 혼란상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 저항한 시기를 통상 중국에서는 ‘항일전쟁시기(抗日戰爭時期)’ 또는 ‘항전시기(抗戰時期)’라 부른다.¹³⁾

13) 1931년 9월 18일의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1932년 1월 28일의 상하이사변(淞滬抗戰),

작품은 두 집안 간 누대에 걸친 은원을 사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작품 서두에 19세기 청나라 말기에 살았던 두 집안 선조들의 내력을 서술하기도 하지만, 중심 제재를 둘러싼 본격적인 서사는 이 항전·내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일전쟁이 벌어진 직후인 1938년 무렵에 서사가 출발된다. 1936년의 시안(西安)사변¹⁴⁾을 계기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제2차 국·공합작이 막 이루어진 시점이다.

이 합작으로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 이 때 공산당은 파격적으로 토지혁명 중지, 소비에트 정부 해체, 국민당 정부 산하 지방정부로의 편입을 제안하며 국민당과의 합작에 나선다. 이어 1938년 7월 국민당은 항일·항전 역량을 합의적 방법으로 강화하기 위해 공산당 및 기타 당파와 각계 인사들을 포함한 국민참정회를 구성하기에 이른다.¹⁵⁾ 시안사변은 이러한 합작을 이루게 된 극적인 계기로 역사에 남아 있다.

이 시안사변에 양후청(楊虎城) 예하의 제49여단장으로 참여했었던 인물 왕진짜이의 제128사단에 왕라거우가 몸을 의탁함으로써 이 작품의 중심 제재인 ‘살인의 꿈’은 막이 오른다. 그리고 서사는 왕진짜이의 부대와 국공 합작하기를 원하는 공산당 신사군의 총사령관·정치위원인 타오주(陶鑄)·양쉐청(楊學誠)의 밀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간다.

1940년 후베이지역의 형세에 기반을 둔 이 작품에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용어들은 아편(鴉片), 서북군(西北軍), 신사군(新四軍), 일군(日軍), 항일(抗日)전쟁, 해방(解放)전쟁, 토지개혁(土改)정책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왕라거우와 덩쑹왕으로 대표되는 두 집안의 내력을 설파하기 위해 청조 말기 도

1937년 7월 7일 베이징 인근의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으로 발발한 중일전쟁, 1941년 12월 7일 발발한 태평양전쟁, 그리고 동년 12월 9일 당시 충칭(重慶) 국민당 정부의 대일 선전포고를 거쳐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하는 때까지의 14년이다.

14) 동북 군벌 장쉐량(張學良)과 서북군 총사령관 양후청이 공산당 토벌을 우선하는 장제스를 시안 화칭즈(華清池)에 연금하고 내전 중지 및 공동 항일 투쟁을 강제한 사건.

15)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 - 동아시아 근현대사 논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10쪽 참조.

광제(道光帝)와 광서제(光緒帝) 시기 용어들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서사의 주류를 이루는 제2차 국공합작 및 국공내전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 실재와 이 역사적 실재가 서사의 전개와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구성은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에서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정교하다. 실존 인물은 마오쩌둥, 장제스(蔣介石), 왕징웨이(汪精衛), 왕진짜이, 타오주, 양쉐칭, 탕은보(湯恩伯) 등이 나타나고, 왕진짜이의 제128사단이 일본군에 맞선 1938년의 멘양전투와 1940년의 타오자바(陶家壩)전투¹⁶⁾를 비롯해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국민당군과 공산당 신사군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왕라거우를 통해 국공내전의 혼란상을 나타내는 많은 전투들도 그려지고 있다.

서사 전개에서 역사적 실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작품에서는 장제스가 직접 제128사단의 급여 지급 중단을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사단장인 왕진짜이가 반발해 아군인 진이우(金亦吾)의 부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실제 이 급여 지급 중단 사건은 장제스의 수하 탕은보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또한 왕진짜이 부대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39년 무렵으로, 이때 그는 스자강(施家港)지역에서 일본군을 맞아 일본군 소좌 가와지마(川島)를 비롯 일본군 1,800명을 사살하고 탱크 4대를 노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¹⁸⁾ 작품에서는 1941년 무렵의 일로 나타나고 있다.

16) 1940년 6월 후베이성 타오자바지역에서 왕진짜이의 제128사단이 상하이와 난징을 거쳐 대륙의 내지로 향하던 일본군 5만 명을 저지한 전투.

17) 시안사변 당시 왕진짜이와 당시 그의 상관 양후청에 의해 일시 체포되었다가 다시 복귀해 왕진짜이의 상급자가 된 장제스의 수하 천칭(陳誠)과 탕은보는 내심 왕진짜이를 믿지 못해 심복인 셰(謝) 모 장군을 감시역으로 붙인 채 그의 제128사단을 4개 단(團)으로 분리하고 후베이 서부지역(鄂西)으로 보내 부대를 정비하게 했으나, 이를 눈치 챈 왕진짜이가 셰(謝) 모 장군을 처치하고 주둔지를 멘양(沔陽)으로 무단 이동했으며, 이러한 명령 불복중에 분기탱천한 탕은보가 왕진짜이 사단의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彤學·蘭瀾, 『鄂中抗戰怪傑王勁哉 傳奇』, 『湖北當案』, 2003. 9. 39쪽.

18) 向虎維, 『向岩與抗日怪將王勁哉』, 『世紀行』 2009年 第5期. 44쪽.

3. 격변기 보통사람들의 생존 서사

1) 정치적 배제에서 시대의 표상으로

두 작품 공히 작품 속에서 작·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실존 인물들은 작품의 주변 또는 배경을 구성하거나 서사의 전개를 지원할 뿐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요 역할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에서는 라라, 그리고 『살인의 꿈』에서는 왕라거우이다.¹⁹⁾ 이들은 작품에 설정된 시기에서든 지금에서든 결코 현실적으로 사회적 조명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인물들이다. 작가는 이러한 갑남을녀들을 형상화한 후 이들에게 시대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다.²⁰⁾

어느 시대든 보통사람들은 역사의 흐름에 몸을 싣고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갈 뿐이다. 강물 속 암초와 같이 역사의 저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그다지 구애받지 않는다. 암초를 만난 강물이 여전히 흘러갈 뿐이듯 이들도 그저 흘러가는 일에만 몰두한다. 츠리 작품의 지리적 배경으로 두루 나타나고 있는 후베이성 멘수진의 사람들 역시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꺾끗이, 그리고 끈기 있게 생명력 있는 자신들만의 악장을 그리고 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라라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풍상을 겪는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내 수공업 작업을 이끄는가 하면

19) ‘라라(辣辣)’라는 이름에서는 ‘맵짠/당찬 아줌마’, 또는 ‘세련된/멋진 아줌마’라는 의미의 현대 신조어 ‘라마(辣媽)’가 연상되며, ‘라거우(臘狗)’라는 이름은 소작농의 아이답게 솟제 ‘설달 그믐생 개똥이’라는 의미이다.

20) 작가는 역사를 대하며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멘수이진에 얽힌 역사적 인물들이 그의 붓끝으로 다가왔으며, 그가 그려낸 인물들은 멘수이진이 자리한 장한평원에서 활동하기는 했으나 실인즉 중국인의 축소판이자 전 인류의 축소판이라고 했다. 비록 자신의 필력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을지언정 그리 하고자 한 염원만큼은 확고했다는 술회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자신의 작품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을 보편적인 세계시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孫雯, 『池莉構造的沔水鎮』, 『文學界(理論版)』, 2012. 5. 25. 183쪽.

쌀 한 포대에 인격을 거래하기도 하고, 이후 매혈(賣血)로 생계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그의 삶을 대하는 의지는 굳건하다.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다는 철칙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철칙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지는 없다. 삶을 대하는 그의 자세는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고작 나이 서른에 졸지에 과부가 되고 아이 여덟 명을 건사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는 데는 거침이 없다.

이 시기 지식인의 인물 형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의 삼촌 왕센량이 진실된 마음으로 형수에게 구애를 하지만, 그 순간에도 라라는 바느질에만 전념할 뿐이다. 가끔 정분을 통하여 마음을 주고받던 주(朱) 씨의 도움의 손길도 있지만, 라라가 허용하는 것은 자신의 매혈 주선과 아비 없는 아이를 가지게 된 막내딸 구이즈(貴子)의 혼처 주선까지만이다. 작가는 매우 극단적인 환경과 상황을 설정해 라라로 하여금 이를 극복하도록 하는 한편 종종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지만, 정작 라라에게 구원의 길은 오로지 자구(自救)뿐이며 그 자구책은 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작품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보통여인이 이끌어 가는 역사를 웅변하고 있다. 타인의 신념에 의지하지 않고 올곧고 완강하게 자신만의 단막극을 연출하고 있는 그는 작품 속에서 그와 처지가 유사한 수많은 보통사람들을 대변한다.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던 라라에게 서사의 전개와 반전을 담당하고 있는 혁명사업은 실로 무의미한 것이었다. 정치적 주장같은 것에는 애시당초 관심도 없는데다 그것의 시비를 제대로 가릴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라라에게는 두말 할 나위없이 어느 정파와도 무관한, 그리고 실제로는 인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른바 소요파(逍遙派)²¹⁾가 제격이었다.

21) 문화대혁명 초기 2~3년에는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당권파와 이들을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주자파(走資派)로 간주하며 정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조반파 사이의 대립이 극심했다. 당권파 중에서도 주자파를 옹호하며 수구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나 조직 일부는 보황파(保皇派)라 불리기도 했다. 또한 그들 사이에 끼여 이도저도 아닌 처지에서 혼란한 정국과는 아예 담을 쌓고 조용히 지내려는 사람들도 많았으니, 후일 이들은 소요파

라라도 일전에 주민위원회에 소속된 집안의 부녀들이 나서서 만든 전투적인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 붉은 완장을 차고 마오쩌둥 주석의 어록집 보따리를 짊어진 채 시위에 가담하기도 했고, (반동으로 몰린) 장시우진(蔣秀金)을 조리돌림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縣)위원회에서 서기를 맡고 있던 뤼산쿠이(羅山奎)란 사람이 다들 수군거리듯 실제로 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권파인지 아닌지 그의 짧은 식견으로는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을 것인데다 집안일이 밀려 있었던지라 그만 탈퇴하고 이제는 소요과가 된 터였다. (중략)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 분간할 재간이 없었던 라라는 그저 어느 편이든 죄를 짓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²²⁾

혁명에 무심한 라라에게도 혁명의 물결은 어김없이 다가와 집안 문턱을 넘는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혁명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훗날 큰아들 더우가 무작정 홍위병으로 나서고, 둘째딸 동얼(冬兒)이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되는 등 혁명의 광풍에 휩쓸리지만 그런 일들과 맞닥뜨리는 라라의 판단 가치는 가족사의 범위 내에서 서만이다. 이는 혁명사업보다 보통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우선 순위에 두고자 하는 작가의 시선이기도 하다.

집안에 잠시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다들 썩기를 멈추고 식탁 가장자리 위에 영금영금 올라가 왕셴량의 설명을 들었다. 문화대혁명이란 게 대관절 어떤 것인지를 처음 듣는 자리였다. 왕셴량이 얼굴에 자못 흥조를 띠며 마오쩌둥 주석과 대자보, 그리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대 소탕 움직임에 대해 일장연설을 했다. 하지만 라라에게 그저 이해되는 것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 삼촌이 마오쩌둥 주석을 보위하고자 한다는 것 뿐이었다. 멀리 베이징에 있는 마오쩌둥 주석이 무얼 어찌 하건 말건, 그 주석이란 사람이 아이들의 삼촌을 친히 불렀건 말건 관계할 바 없었다.²³⁾

(逍遙派)라 불리게 된다.

22) 池莉, 「你是一條河」, 『池莉小說精選』, 97~98쪽.

23) 앞의 책, 96쪽.

『살인의 꿈』에서는 소작농과 봉건 지주의 대결이라는 묵직한 문체가 다소 희극적인 서사 전개로 인해 매우 가벼워진다. 봉건시대 자산가였다가 소작농으로 전락해 버린 집안의 왕라거우는 빈민에서 출발해 봉건 지주로 부상한 집안의 덩쑥왕에게 격변기의 세태를 이용해 복수하고자 하나 누차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단념하기에 이른다. 두 집안의 사회적 계급을 작품 서두에서부터 흔들어버리는 데에서 봉건적 계급 사회의 질서를 대하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다.

할머니의 집안 교육을 통해 덩쑥왕네를 집안의 원수로 치부한 왕라거우는 신혼 초야에 덩쑥왕네 식구였던 곰보 부인 치우타오(秋桃)를 버리고 복수의 길에 나선다. 그는 멘양 전투를 통해 제128사단 지휘관 왕진짜이의 참모가 되어 사회적 신분의 상승과 함께 살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그에게 이 시기의 정치적 세력들이 복잡하게 맞물린다.

국민당과의 합작을 원하는 공산당 신사군의 지휘관 타오주·양쉐청의 밀서 내용은 서사의 전개 과정 내내 잠복하고 있다가 작품 말미에 왕라거우의 살인의 꿈을 무산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또한 종전·해방 이후의 토지개혁운동은 그때까지도 살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왕라거우가 출신 성분을 내세워 마지막으로 살인을 시도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어준다.

작품에서는 막바지에 이른 전란의 와중에 침탈과 저항, 좌우 이념의 대립에서 소외된 채 생존에만 급급한 보통사람들의 모습이 왕라거우를 통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다. 각종 세력들이 한데 뒤엉켜 제각각 다른 주장과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모두 궁극적으로는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세력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명분으로 인해 정작 삶이 황폐해져 고통받는 것은 영락없이 보통사람들이다.

1941년이였다. 항일전쟁이 비할 바 없이 고생스러운 한때를 지나고 있었다.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관급과 고위 장성들은 전황이 유리해졌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 휘하 수많은 장병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누가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어느 날은 이 부대와 싸우고 또 어

느 날은 저 부대와 싸우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전란의 북새통 속에서 빗발치는 명을 받드느라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쳐갔다. 각자 지니고 있었던 수많은 희망과 꿈들이 형체도 없이 저편으로 내팽개쳐졌다. 왕라거우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중략)

여러 지역을 오가며 공격과 강화, 그리고 또다시 강화와 공격을 거듭하는 가운데 눈 깜짝할 새 봄이 가고 겨울이 왔고, 또 그 겨울이 가고 다른 봄이 왔다. 세월은 그토록 빨리 흘렀건만 흘러가버린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향해 웃었을 뿐이었다. 아이들의 소꿉장난과 다를 바 없었고,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²⁴⁾

라라와 왕라거우는 그들이 살다간 혁명과 전란의 시기에는 정치적 변혁의 주도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배제된 마치 풀 한 포기라도 같이 미미한 존재였지만, 훗날 개인화된 역사를 거부하고 해당 시기의 보통사람을 대표성으로 규정 짓는 작가에 의해 이처럼 각각 해당 시대를 대표하는 표상으로 자리매김된다.

2) 혁명과 전란이 남긴 상흔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에서 혁명은 사회의 모든 부분을 뒤흔들었고, 라라네 일가족도 여기서 비켜나갈 수 없었다. 무산계급인 노동자 집안에 속했던 만큼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는 분위기이기는 했으나, 그렇다 해서 집안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살벌하고 경색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며, 가족들은 혁명과 관련한 이런저런 사건·사고들에 휘말려들게 된다.

불법 가택 수색과 재산 몰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와중에 라라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²⁵⁾라는 두터운 책 한 권을 슬며시 챙겨온다. 라라가 그

24) 池莉, 『預謀殺人』, 『池莉小說精選』, 187쪽.

25) 『Как закалялась сталь / How the Steel Was Tempered / 鋼鐵是怎樣煉成的』,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의 자전적 소설. 러시아 혁명에서부터 소비에트-폴란드

책을 챙겨온 목적은 그것이 측간에 갈 때나 불쏘시개로 쓰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세상과 자신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혁명 서적이지만, 그에게는 그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훗날 이 작품의 또 다른 중심 인물인 그의 둘째딸 동얼의 사상을 확립시키며 앞날의 인생 역정마저 바꾸어 놓게 된다.

가난과 무지에 찌든 집안에 환멸을 느끼던 동얼은 이 책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상산하향운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혁명이 끝난 후에는 '깨끗한 삶/거듭난 삶'이라는 의미의 징성(淨生)으로 개명하고 어머니인 라라와 집안 식구들과 단절한 채 그만의 새로운 삶을 찾아간다. 열걸에 홍위병이 되었다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큰아들 더우에 이어 라라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비극이다. 거기에 더해 뜻밖의 사고 때문에 넷째 아들 서위안을 총살형으로 잃게 되고, 또 혁명이 공식적으로 끝난 작품 말미에는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 스칭마저 집을 나가 제2차 텐안문 사태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암시가 나타난다. 여덟 아이를 데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온 라라에게는 몹쓸 혁명이 그의 아이들에게 남긴 상흔으로 인해 아직 끝나지 않은 혁명이다.

혁명이 끝난 후 삼촌 왕센량의 도움을 받아가며 애타게 둘째딸을 찾은 라라에게 보내온 동얼의 경멸과 증오에 가득찬 모진 편지 한 장은 라라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며 그의 죽음을 재촉한다. 당신의 딸이 아니니 더 이상 찾지 말라는 편지글에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책과 관련한 둘 사이의 예전의 상처도 언급되어 있다.

『살인의 꿈』에서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왕라거우의 살인의 꿈에서 비롯된 군대 역정이다. 그가 덩쑹왕에게 살의를 품게 된 계기는 그의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집안 내력이다. 맨수이진 일대의 거상이었던 그의 증조부, 아편으로 인해 몰락했던 그의 조부 이야기며 대대로 이 집안에 빌붙어 지내던 덩쑹네

전쟁, 레닌의 사망, 그리고 5개년 계획(1928~1932)까지의 시대를 다루며 자본주의의 착취 속에 태어난 주인공 '파벨 코르차긴'이 숭한 경로를 통해 철저한 사회주의자, 혁명 전사로 탈바꿈해 가는 내용이다.

의 사업이 번창일로로 걸으며 마침내 거대한 전답을 소유하게 된 내력, 그리고 그의 조부가 남긴 유족들이 결국 덩씨네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 사연과 그를 낳은 지 6개월만에 덩종왕의 젓어미로 차출되어 갔던 그의 어머니의 석연치 않은 죽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왕라거우의 미래지향점은 고착화된다. 그는 어린 시절 소작농의 자식으로 배추밭에 거름을 뿌릴 때마다 정원의 정자에서 한가로이 시집을 읽고 있는 덩종왕을 바라보며 녀석을 없애버리겠노라고 암암리에 맹세한다. 전란 시기 내내 그가 여러 부대를 전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이때 마음 먹은 살인의 꿈이었다.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인간은 일상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쉽다. 그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과거 인물들의 내력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분노의 강도가 더욱 심해진다. 그 분노는 자신의 절제 하에 적절히 통제될 경우에는 발전지향적인 돌파력과 추진력을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과 주변인 모두를 공멸의 길로 이끌기 십상이다.

살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소작농이라는 신분을 내던지고 왕라거우가 선택한 것은 군인의 길이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 일상은 물론 잔혹한 사단장에 의해 눈 하나를 잃기도 하는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꿈을 이루기도 전에 훗날 그를 옥죄는 일들을 겪게 된다.

항전·내전 시기의 복잡다단한 형세와 국면은 그를 특정 정파 소속 부대의 일원으로 고스란히 존속할 수 있게 놓아두지를 않았다.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부대를 따라 그의 소속은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전란이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세상이 되었을 때 여러 정파 소속의 부대를 거친 이력의 그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게 된다.

항일전쟁은 2년 더 지속되었고, 뒤이어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해방전쟁이 또 3년 동안 지속되었다. 도합 이 5년 동안의 전쟁 기간 중 왕라거우는 마치 집에 돌아가려고 안달하는 강아지 모양 맨수이진 일대를 빙빙 돌며 지냈다. 오늘은 공산당 신사군 15여단, 내일은 천바테(陳八爹)의

항일구국단(의용군)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이 부대 저 부대를 전전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중략)

도리없이 그는 또다시 이 부대 저 부대를 전전했다. 어느 부대든 상관 없었다. 그저 고참병일 뿐이었다. 어차피 그는 총 잘 쏘고 씬박질 잘 해서 밥 벌여 먹는 인간에 불과했다. 결국 장한평원 어디에도 그가 마음 편히 몸을 누일 데는 없게 되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뼈를 깎는 듯한 군부대 생활에도 세월은 흐른다고들 하지만 왕라거우야말로 흐르는 세월에 뼈를 깎는 밥벌이 군인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마지막 부대는 공산당 신사군이였다.²⁶⁾

왕라거우는 항전-내전 시기를 거치며 인생살이가 꼬여서 풀리지 않은 대표적인 불운한 사람이었다. 공산당 치하가 된 세상에서 항전-내전 시기에 국민당 소속으로 공산당 연락원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은 일단코 용납되지 않을 죄악이었다. 만약 그가 이 시기 공산당의 신사군이나 인민해방군에만 일관되게 소속되어 있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수시로 인민정부의 조사를 받거나 체포되어 감방을 들락날락할 리도 만무했을 것이고, 더구나 악질분자로 몰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었다. 그는 남은 생애 내내 지주계급 및 반동분자와 함께 특하면 인민들의 공개 비판을 받으며 고생스럽게 살게 된다. 전란은 끝났지만 전란이 남긴 상흔으로 인해 그의 전란은 현재진행형으로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다.

4. 과거사의 끝자락을 이어받은 현재

두 작품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들은 모두 궁핍한 일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빈곤 묘사는 해당 시대 보통사람들의 모습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 인물들 중에는 절대빈곤의 현실에 체념하며 순응하는 인물도 있는

26) 앞의 책, 149쪽.

반면 가출이든 사회 변혁 운동이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혁명과 전란의 소용돌이에 노출된 채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은 당대에서는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이들도 잘 알고 있다.

다소 시기를 달리할 뿐 두 작품은 역사적 실재와 평행선을 달리며 서사가 전개된다.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의 경우, 국가와 인민을 위한 대의 명분만을 좇는 라라네 아이들의 삼촌 왕센량, 노동자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타의에 의해 조반과 홍위병이 되었다가 미흡한 개인 역량으로 인해 끝내 내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에 이르는 큰아들 더우, 자신이 그런 모성에 반하는 엄마와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여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자아를 확립해 가는 둘째딸 동얼, 현실과 타협하는 섹법에는 능하나 엉뚱한 현실 감각으로 곤욕을 치르는 큰딸 연춘(艷春), 이상주의 지향의 사회 분위기에서 처형으로 죽음을 맞는 넷째 서위안,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재능을 발산하는 셋째 아들 야오진, 미숙아로 태어나 불행한 일생을 걷는 쌍둥이 푸즈(福子)와 구이즈(貴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지만 마지막에 사회적 저항의 암시를 톡 던져주는 스칭, 그리고 이 모든 아이들을 아우르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라라는 격변기 역사의 흐름에 얽혀 각자의 방식대로 생존해 나간다.

『살인의 꿈』에 나타나는 인물 형상들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나라에 떨어진 왕라거우, 누대에 걸쳐 쌓은 부를 변혁기를 맞아 한순간에 잃게 되는 덩쑹왕, 첫날 밤에 얻은 아들을 키우다가 떠나간 남편과 극적으로 재회하지만 살인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곰보부인 치우타오, 국민당 소속이면서도 정치적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대를 운용하다가 끝내 포로로 죽음을 맞는 괴짜 장군 왕진짜이 등도 제각각의 소신대로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

역사는 혁명과 전란을 갖대로 시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만, 보통사람들의 삶은 단절되지 않고 대를 이어가며 물흐르듯 연결된다. 선대와 후대가 삶의 일정기간을 공유하며 엮고 엮이는 동안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통사람들의 삶은 결국 시대 구분과는 별도의 연결고리를 가지며 형성된다.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는 문화대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건의 발생 경위나 그 사건의 경과와 소멸에 대한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살인의 꿈』 역시 시안사변에서 출발하는 국공합작과 국공내전의 경위와 향전의 형세 및 추이, 역사적 결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이 시기의 주요 역사적 실재들은 보통사람들이 전해듣는 풍문으로만 잠깐씩 나타나곤 한다.

역사적 실재에 기반한 특정 사건과 국면들이 단지 배경으로만 자리하고 있는 것은 국면의 전환점이 되는 이러한 역사적 실재들의 주역은 보통사람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가의 관심 영역은 그런 역사적 사건을 도화선으로 야기되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흐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중심 인물과 그의 일족이 겪게 되는 갈등과 분란, 주요 인물들의 변신과 부침, 절규와 회한, 미래에의 예견 등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가는 이러한 서사의 전개를 관통하며 혁명과 전란 시기 보통사람이 겪었던 시대적 아픔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에서는 여성인 라라와 동얼로 상징되는 ‘모성 형상’과 ‘여성 자아’를 동시에 추구해 가고 있으며, 『살인의 꿈』에서는 왕라거우와 덩쑹왕을 내세워 봉건 지주와 소작농 사이 계급 투쟁의 문제를 함께 그리고 있다. 이는 역사적 실재를 제재로 삼으면서도 보통사람들의 서사를 전개할 수 있게 하는 두 작품의 또 다른 주제와 구성이기도 하다.

청조 말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에 이르는 기간은 근현대 중국 역사에서 격변의 연속이었으며, 이 시기 숨가쁜 역사의 뒤틀림 속에서 고난은 언제나 민초로 불리는 보통사람들의 몫이었다. 사실 이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회의 중하부를 구성하며 마치 내던져진 존재처럼 살아간다. 자신과 일족의 위협을 막아 줄 마땅한 바람막이 장치를 가지지 못한 이들은 역사의 구비마다 늘 맨몸으로 그 변화를 맞아야만 했다. 역사의 전환기에서 영웅들이 외치는 새로운 세상은 이들로서는 그나마 후대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인 그런 세상이었다.

『그대는 한 줄기 강이려오』에서 라라의 죽음을 재촉했던 둘째딸 동열은 집안사람들과 내왕을 끊은 후 베이징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불현듯 꿈에서 라라의 죽음을 감지한다. 사실 그는 라라와의 모녀 사이라는 인연을 스스로 끊었었지만, 이제는 내심 극적인 화해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들 모녀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에 화해의 기약만이 남게 된다.

과학적 검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괴이한 일이 더러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억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라라가 오매불망 동열을 찾고 있을 때 멀리 베이징에 살고 있던 동열은 악몽을 꾸다가 돌연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말했다. “엄마가 죽었어!” 남편이 불을 켜다. “당신, 고아 아니었어?” “아니!” 동열이 말했다. (중략)

그는 아이 엄마가 된 후에야 자기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차츰 자존심이 허락되는 대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보러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라라는 동열이 눈물 가득히 옛일을 회상하던 때 눈을 감았으니, 그의 나이 55세였다.²⁷⁾

한편 『살인의 꿈』에서 토지개혁운동을 통한 마지막 살인의 기회까지 놓친 왕라거우가 깨닫게 된 것은 이른바 ‘식자무환(識者無患)’²⁸⁾이다. 덩쑹왕이 여러 번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로 그가 일찌감치 글을 익혔고, 또 글을 암송할 줄 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왕라거우가 누차에 걸친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무지의 소치로 결론지은 것은 바로 사회계층 간 억압과 피억압을 구분짓는 잣대가 결국 ‘알량한 지식’ 때문이라는 작가의 분석이고 기획이다. 이후 아이들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 했다는, 왕라거우 후손들의 축복 받은 훗날의 소식을 암시하며 서사는 마무리된다.

이처럼 두 작품 모두 마지막에 여운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화두는 용서

27) 池莉, 「你是一條河」, 『池莉小說精選』, 150쪽.

28)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의미의, 기존의 어휘를 비튼 작가 고유의 표현.

를 전제로 한 ‘화해(和諧)’와 이를 통한 ‘복락(福樂)’이다. 용서가 과거사 정리의 문제라면 화해는 미래와 관련된 관계의 문제이다. 관계는 서로가 소통하는 장(場)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창(窓)이다. 창이 열려 있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능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관계는 단절된다. 용서와 화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관계의 창은 열리지 않고, 관계의 장도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용서와 화해는 관계의 창을 열고 장(場)을 형성하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²⁹⁾ 그러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남긴 상흔, 이념의 혼선에 따른 이합집산과 투쟁의 끝자락에서 풀어야 하는 용서와 화해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복락 역시 용서와 화해만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5. 나오며

작가가 1990년대 초기에 문화대혁명과 항전·내전 시기를 소환해 연이어 이들 작품을 쓴 경위는 그의 작품 이력으로 보아 얼핏 외형적으로는 제재의 확장을 통해 작품 세계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작품 세계를 통해 중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한 것일 수도 있다. 작가의 이후 작품들과 연관해 보면 어쩌면 작가는 이 시기를 서술하지 않고서는 현재를 서술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문화대혁명 도중 발생한 역사적 실재는 작가의 의지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현대 중국에 엄청난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정치적·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문화대혁명을 소환해 중국 내에서 본격 거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해석은 지금도 1981년 11기 6중전회에서 결의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

29) 박혜순, 「용서, 화해 그리고 생명」, 『철학논집』 제53집, 2018. 5. 73쪽.

題的決議)」로 평가한 공식 정리에 머물러 있으며, 여기에서 한 치의 수정과 보완, 재해석도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있다. 양안(兩岸)으로 불리는 타이완 문제 등 『살인의 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항전·내전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해석에 따른 제약은 마찬가지이다.

문화대혁명을 직접 체험한 세대,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의 정치적 흐름과 작금의 국제 정세를 지켜보아온 세대의 작가가 역사적 실재와 관련한 서사의 운용에 임의성을 더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이다. 이들 작품에서도 역사적 실재는 서사 전개 과정에서 해당 국면의 전환과 반전의 계기로만 작용할 뿐이다.

그래서인지 작가는 역사적 실재를 해석한다거나 특별히 수정이나 보완, 왜곡하지 않고 발생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서사를 얹어 전개해 나간다. 이는 창작 의도가 역사적 실재의 해석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몸을 내맡긴 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삶을 그리고자 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혁명과 전란 시기 고단한 삶을 이어갔던 이들을 시대적 표상으로 삼아 해당 시기의 아픔을 부분적으로나마 재현하는 한편 해당 시기가 현재에 이르도록 남긴 아픈 상흔들을 나타내고자 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개인화된 역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몇몇 영웅들의 강한 주장과 빛나는 업적 때문이 아니라 라라와 왕라거우같은 보통사람들이 저변을 이루며 참여하기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가 말하듯 내 이웃이 곧 세계의 보편적 시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시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의 여타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작품 역시 보통사람의 삶의 이야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두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실재들은 한결 같이 보통사람들의 삶의 서사를 지원하는 맞춤형 요긴한 제재로 기능하고 있다.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는 살인의 꿈과 그의 자손들이 누리는 것으로 암시되는 복락은 수십 년에 걸친 내우외환 속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근현대의 쓰라린 과거사를 딛고 미래지향적 화해와 복락을 부르짖는 중국 사회의 정치적 현재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비친다.

參考文獻

- 池莉, 『池莉小說精選』, 長江文藝出版社, 2003. 6.
-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 - 동아시아 근현대사 논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백승욱, 『문화대혁명-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살림출판사, 2007. 7. 5.
- 백정희·김상원, 『중국 현·당대문학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01.
- 조관희, 『중국현대사 - 신해혁명부터 홍콩 반환까지』, 청아출판사, 2019. 1. 30.
- 박혜순, 「용서, 화해 그리고 생명」, 『철학논집』 제53집, 2018. 5.
- 彤學·蘭瀾, 「鄂中抗戰怪傑王勁哉 傳奇」, 『湖北當案』, 2003. 9.
- 孫雯, 「池莉構造的沔水鎮」, 『文學界(理論版)』, 2012. 5. 25.
- 吳勝蘭·羅成, 「王勁哉的沔陽抗戰」, 『當案記憶』 2019年 第4期.
- 向虎雛, 「向岩與抗日怪將王勁哉」, 『世紀行』 2009年 第5期.

Abstract

The Meaning of Historical Reality as a Subject in the Novel of Tsu Li - A Focus on 『You are a River』 and 『The Murder Attempt』

Park, Jeong Tai

This study analyzes two novels based on historical reality that were published in the early 1990s by the contemporary Chinese writer Tsu Li. The background of the two works is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the Second United Front, and the Chinese Civil War, which reveals the true modern history of China that is not represented in official Chinese historical discourse. Tsu Li gives representation of the times to proletariat class who can not experience social enlightenment, and depicts changes in their lives, conflicts and confusion, transformations, positive and negative circumstances, indifference and remorse, and predictions for the future.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se periods is still selectively regulated in the current politics and society of modern China. Therefore, Tsu Li wanted to recreate the pain of this period through the stories of those who had experienced hardships during the revolution and war, leaving the specific issues of historical reality unchained, while showing the painful scars left by this period to the time.

Key words :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the Second United Front, the Chinese Civil War, the proletariat class, the representation of the times, the narrative of survival, the scars of revolution and war

투 고 일 : 2022. 10. 10. / 심 사 일 : 2022. 10. 15. ~ 2022. 11. 15. / 게재확정일 : 2022. 11. 20.